

#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지훈\*, 정재훈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in Occupational Therapists

Ji Hoon Kim\*, Jae Hun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작업치료사 173명을 대상으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p<.01)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교육경험(p<.01)과 윤리문제의 심각성(p<.05)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교육경험(p<.05)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하여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작업치료사, 직업윤리, 교육,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Abstract The aimed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the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in occupational therapists. 173 occupational therapists measure for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was correlated with job stress, job commitment(p<.01). Second,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sub-factor of education experience(p<.01),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p<.05) was found to have affected the job stress. Third,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sub-factor of education experience(p<.05) was found to have affected the job commitmen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ystematic education will be need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ethics and improve it.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ist, Vocational Ethics, Education, Job Stress, Job Commit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aya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Ji Hoon Kim(otkjhoon@kaya.ac.kr)

Received August 3,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1,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 1. 서론

전문직이란 장기간 체계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공인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의미한다[1].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식과 기술은 사회구성원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며 이익 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투철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2]. 특히나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경우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에 해당하는 근로윤리와 봉사정신, 책임정신, 준법성, 직장예절에 해당하는 공동체 윤리를 포함하는 직업윤리는 매우 중요하다[3].

이중 작업치료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동작, 일, 여가 활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발달 수준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고 목적있는 활동을 통하여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다[4].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과는 달리 작업치료사는 환자와 오랜시간 동안 대면하며 장기간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을 가진다[5]. 이러한 과정에서 치료사와 환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신뢰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환자 및 사회의 가치와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치료사들이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6]. 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진실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윤리이론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이 필요하다[3].

의료서비스에 대한 윤리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윤리적 고민은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7]. 작업치료사는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준 높은 치료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긴장과 함께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윤리적 상황 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8]. 직무스트레스는 업무 능률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직무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해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9].

인간을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건의 전문직의 경우 투명한 직업윤리와 함께 직무에 대한 높은 몰입이 요구된다[10]. 직무몰입은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화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로서, 직무몰입이 높은 사람의 경우 직무요구와 자신의 수행 간의 일치감

을 많이 느끼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 직무에 대한 만족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11]. 이러한 직무몰입은 연령, 성별 등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12], 직업에 대한 긍지[13], 직업윤리인식[10]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윤리가 확고하지 않다면, 업무 중 발생하는 윤리적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직무몰입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함양과 교육 적용이 필요하다. 직업윤리 교육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15], 인간의 근본적인 철학적, 윤리적 사고를 기반에 두고[16], 전문가의 자질향상이나 가치관 형성의 차원을 넘어선 복잡한 현실에서 요구되는 도덕적인 문제의 해결능력, 추론 및 토론 능력 등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17].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의사[18-20], 간호사[21-23], 물리치료사[15], 치과기공사[3,24]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에서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직업윤리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작업치료사의 직업의식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25], 작업치료사의 직업의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26]만 있을 뿐,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가 어느 정도인지, 직업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확인할 길이 없다. 작업치료 분야는 최근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직무몰입 향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

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요인들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21년 4월 26일부터 동년 6월 11일까지 전국에서 소재한 병원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자, 임상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이다.

연구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을 사용하여 중간 효과 크기( $f^2$ )=0.15, 유의수준( $\alpha$ )=0.05, 검정력( $1-\beta$ )=.95로 지정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153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84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일부 누락된 11부를 제외한 173명이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최소 표본수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연구 도구

####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유무, 학력, 근무지역, 근무기관, 근무분야, 임상경력 등 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2.3.2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Lee[3]와 Ahn[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관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작업치료학과 교수 2

인과 임상경력 10년 이상 작업치료사 3인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 내용으로는 윤리적 가치관,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윤리교육 경험,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성, 윤리교육 참여 의사, 윤리문제의 심각성, 윤리교육의 필요성 등 7가지 항목, 총점 20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3]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87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753이었다.

#### 2.3.3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Chang et al[27]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장 문화, 조직 체계, 직무자율, 보상 부적절, 직무 요구,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등 7개 항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의 점수는 4점 Likert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ng et al[2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75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912이다.

#### 2.3.4 직무몰입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몰입을 평가하기 위해 Kanungo[28]가 개발한 직무몰입 척도를 Lee[29]의 연구에서 수정 및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을 것을 의미하며, Lee[2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90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889이다.

###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26일부터 동년 6월 11일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임의표집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해당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자료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 모든 연구 자료는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 실시를 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였다.

### 2.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실시하였으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alpha=.05$ 이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173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3)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58	33.5
	Female	115	66.5
Age(years)	20~29	96	55.5
	30~39	56	32.4
	40≤	21	12.1
Marital status	Married	46	26.6
	Single	127	73.4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51	29.5
	Ununiversity	79	45.7
	Over Graduate school	43	24.9
Working area	Seoul & Gyeonggi	32	23.1
	Pusan & Gyeongnam	61	35.3
	Daegu & Gyeongbuk	40	23.1
	The others	40	23.1
The type of service agency	University & general hospital	24	13.8
	Rehabilitation hospital	84	48.6
	Child center	43	24.9
	The others	22	12.7
The field of work	Adult & aged	109	69.4
	Child	46	26.8
	The others	18	10.4
Length of service (year)	1~5	71	41.0
	6~10	62	35.8
	11~15	25	14.5
	16≤	15	8.7

성별은 남자 58명(33.5%), 여자 115명(66.5%)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20대 96명(55.5%), 30대 56명(32.4%), 40대 이상 21명(12.1%)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결혼유무는 기혼 46명(26.6%), 미혼 127명(73.4%)로 미혼이 더 많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업 51명(29.5%), 대학교졸업 79명(45.7%), 대학원 이상 43명(24.9%)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서울·경기 32명(18.5%), 부산·경남 61명(35.3%), 대구·경북 40명(23.1%), 기타 40명(23.1%)로 부산·경남이 가장 많았다. 근무기관은 대학·종합병원 24명(13.9%), 재활·요양병원 84명(48.6%), 아동센터 43명(24.9%), 기타 22명(12.7%)로 재활·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근무분야는 신경계 성인 109명(69.4%), 신경계 아동 46명(26.6%), 기타 18명(10.4%)로 신경계 성인이 가장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1~5년 미만 71명(41.0%), 6~10년 62명(35.8%), 11~15년 25명(14.5%), 16년 이상 15명(8.7%)로 1~5년이 가장 많았다.

### 3.2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정도

Table 2. Score for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Variable	Score	M±SD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	14.98±2.71
Sub) Ethical values	1	1.99±.61
	2	
	3	
Sub) OT code of ethics	1	2.14±.56
	2	
	3	
Sub)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1	1.66±.48
	2	
Sub) Sufficent of ethical education	1	1.81±.73
	2	
	3	
Sub) Participation in ethics education	1	2.37±.65
	2	
	3	
Sub)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1	2.54±.58
	2	
	3	
Sub) Necessity of ethical education	1	2.47±.65
	2	
	3	
Job stress	-	55.15±10.42
Job commiment	-	22.47±5.76

연구대상자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체 점수는 14.98±2.71이었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각각 ‘윤리적 가치관’ 1.98±.61,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2.14±.56, ‘윤리교육 경험’ 1.66±.48,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성’ 1.81±.73, ‘윤리교육 참여 의사’ 2.37±.65, ‘윤리문제의 심각성’ 2.54±.58, ‘윤리교육의 필요성’ 2.47±.65이었다. 직무스트레스는 55.15±10.42이었으며, 직무몰입은 22.47±5.76이었다. Table 2.

### 3.3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r=-.331, p<.01$ )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직무몰입( $r=.442, p<.01$ )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은 상관관계를 Table 3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들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성’, ‘윤리교육의 참여 의사’를 제외한 요인들은 직무스트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중 ‘윤리교육 경험’( $r=-.400$ )은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들은 ‘현재 윤리교육의 충분성’을 제외한 요인들은

직무몰입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중 ‘윤리교육의 필요성’( $r=.356$ )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3. The correlation among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Variable	PVEE	JS	JC
PVEE	1		
JS	-.331**	1	
JC	.442**	-.302**	1

\* $p<.05$ , \*\* $p<.01$   
 PVEE: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S: Job stress, JC: Job commitment

### 3.4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교육 경험’은 더 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윤리교육 경험’( $\beta=-.323, p<.01$ )과 ‘윤리문제의 심각성’( $\beta=-.292, p<.05$ )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10.373)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p<.001$ ), 수정된 결정 계수는 .214으로써, 변수들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21.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Table 4. The correlation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job stress, and job commitment

Variable	Q1	Q2	†Q3	Q4	Q5	Q6	Q7	Job stress	Job commitment
Q1	1								
Q2	.416**	1							
Q3	.388	.483	1						
Q4	.166*	.370**	.245**	1					
Q5	.364**	.398**	.420**	-.047	1				
Q6	.250**	.355**	.346**	-.143	.352**	1			
Q7	.526**	.370**	.324**	-.017	.614**	.541**	1		
Job stress	-.245**	-.207**	-.400**	.046	-.136	-.374**	-.262*	1	
Job commitment	.270**	.322**	.316**	.108	.277**	.338**	.356**	-.302**	1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 $p<.05$ , \*\* $p<.01$ ,  
 Q1: Ethical values, Q2: know the Occupational therapists code of ethics, Q3: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Q4: Sufficient of ethical education,  
 Q5: Participation in ethics education, Q6: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Q7: Necessity of Ethical Education

Table 5. Effect of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on job stres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i>t</i>	Sig.	F	Adjusted R Square
	<i>B</i>	Std. Error	Beta				
Constant	78.850	3.832		20.575	.000	10.373	.214
Ethical values	-1.753	1.440	-.103	-1.217	.225		
Know the OT code of ethics	1.575	1.548	.084	1.017	.311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7.081	1.785	-.323**	-3.967	.000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5.281	1.503	-.292**	-3.514	.001		
Necessity of Ethics Education	.629	1.472	.039	.428	.670		

\**p*<.05, \*\**p*<.01

Table 6. Effect of perception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on job commiment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i>t</i>	Sig.	F	Adjusted R Square
	<i>B</i>	Std. Error	Beta				
Constant	10.936	2.304		4.746	.000	7.521	.185
Ethical values	.380	.810	.040	.469	.639		
Know the OT code of ethics	1.098	.880	.106	1.248	.214		
Experience of ethics education	2.258	1.026	.187*	2.201	.029		
Participation in ethics education	-.018	.813	-.002	-0.22	.982		
Seriousness of ethical issues	1.496	.846	.150	1.769	.079		
Necessity of ethical education	1.285	.933	.146	1.377	.170		

\**p*<.05

### 3.5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윤리교육 경험’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은 ‘윤리교육 경험’(β=.187, *p*<.05)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7.521)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1), 수정된 결정 계수는 .185로써, 변수들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18.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 4. 고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작업치료에서 직업윤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화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직무몰입을 증진시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체 점수는  $14.98 \pm 2.71$ 이었다. 그리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별 점수는 ‘윤리적 가치관’  $1.98 \pm 0.61$ ,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2.14 \pm 0.56$ , ‘윤리교육 경험’  $1.66 \pm 0.48$ , ‘현재 윤리교육에 대한 충분성’  $1.81 \pm 0.71$ , ‘윤리교육의 참여 의사’  $2.37 \pm 0.65$ , ‘윤리문제의 심각성’  $2.54 \pm 0.58$ , ‘윤리교육의 필요성’  $2.47 \pm 0.65$ 이었다. 이 중 ‘윤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윤리교육 경험’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Ahn[15]의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경우 윤리문제의 심각성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상자의 윤리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Lee[3]의 연구에서는 윤리문제의 심각성에 ‘그렇다’라고 보고한 대상자가 68.9%로 가장 많았으며, 윤리교육 경험에서 61.3%가 ‘없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맥락

이다. 또한 '직업윤리 교육경험'에 관련된 Jang et al[24]의 연구에서는 학생 34/8%, 교수 22.1%의 낮은 비율이 직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상자들이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만, 윤리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작업치료 직업윤리에 관련된 교육은 한 보고서[30]에 따르면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전국의 62개 대학(교) 중 58개교를 분석한 결과, 작업치료임상 윤리(생명윤리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대학(교)는 3년제 2개교(7.69%), 4년제 3개교(9.38%)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 행동의 원칙이자 표본인 작업치료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학부시절부터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확고한 작업치료사로서 직업윤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반면 Ahn[15]의 연구에서는 교육경험에서 '없다'고 보고한 대상자의 윤리점수가 더 높았다고 한 결과는 본 연구와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근 몇년 전부터 치료 분야에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구 시기에 따른 차이점이라 사료되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적 가치관'( $p < .01$ ),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인식'( $p < .01$ ), '윤리교육 경험'( $p < .01$ ), '윤리문제의 심각성'( $p < .01$ )과 '윤리교육의 필요성'( $p < .05$ ) 등 대부분 요인들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 교직원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 불링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Oh & Cho[32]의 연구에서 직업윤리와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각각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33]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직무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인 '윤리적 가치관'( $p < .01$ ), '작업치료사 윤리강령'( $p < .01$ ), '윤리교육 경험'( $p < .01$ ), '윤리교육의 참여 의사'( $p < .01$ ), '윤리문제의 심각성'( $p < .01$ ), '윤리교육의 필요성'( $p < .01$ ) 등 6가지

항목에서 직무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직업윤리가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10]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34]의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직무몰입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환경에서 최선의 윤리적 행동을 해야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윤리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및 가이드라인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윤리 강화를 통하여 윤리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및 도덕적 판단에 입각하여 윤리적으로 대처하여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본인의 직무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인식 함양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교육 경험'( $p < .01$ )이 적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 & Kang[35]의 연구에서 고객 관련 스트레스와 작업환경 관련 직무스트레스가 윤리적 행동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Jeon[36]의 연구에서 해당 교육 경험이 없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를 통하여 교육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윤리적 가치관으로는 문제에 대한 대처와 의사결정에 한계를 체험함으로써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문제에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함양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체계성 있는 윤리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24]. 따라서 직업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상황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윤리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문제의 심각성'( $p < .01$ )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를 대상한 Ahn[15]의 연구와 치과 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도 윤리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수의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지만, Kim[37]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직업윤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은 이익

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윤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를 대한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윤리교육 경험'(p<.05)이 많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업윤리가 직무몰입 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38]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윤리가 긍정적일수록 직업에 만족하고 수행능력에서 성과가 높으며, 몰입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한 연구[34], 직업윤리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39] 등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환자와 대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직무몰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고취와 함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근무소재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자료수집을 통한 일시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으로 정확한 기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경력은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연구의 편익상 경력 1년 이상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만 실시한 것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을 파악하고 관계를 알아보고,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

구결과는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와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작업치료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J. Y. Kim. (2011). The ethical values and ethical behavior of the preservice music therap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3(2), 57-74.
- [2] N. D. Jo. (2010). *Modern people to professional ethics*. Seoul: Dongmunsa.
- [3] S. K. Lee. (2020). A study on perceptions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among dental technician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42(4), 372-378. DOI: <https://doi.org/10.14347/jtd.2020.42.4.372>
- [4] W. R. Kim, J. Y. Park, Y. J. Yun, W. H. Choi, I. K. Lee & S. M. Jung. (2018). Effects of occupational therapists job stress 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3), 287-295.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8.4.12.3.287>
- [5] E. Y. Park & E. J. Kim. (2008).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occupational therapis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8(10), 208-216.
- [6] B. Y. Lim. (2014). *Moral th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based on defining issues tests*. Master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 [7] Y. G. Noh, M. S. Jung & Y. S. Lee. (2013). Nurs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according to hospital ethical climate typ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513-52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4.513>
- [8] J. H. Kim, J. M. Lee & H. Kim.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work stress of new adult occupational therapists in rehabilitation hospital. *Korean Society of Cognitive Rehabilitation*, 4(1), 41-64.
- [9] S. J. Oh, S. H. Shin, G. Y. Go & P. Banddari. (2014). The effect of job stres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es: mediating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strategy.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6(2), 149-158. DOI: <https://doi.org/10.7475/kjan.2014.26.2.149>



- [10] J. W. Kang. (2014). *A study of the effect of employees' work ethic in welfare facilities on their job commitment*. Master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11] S. K. Kim, J. Y. Jun & C. R. Kim. (2012).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in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to work flow: comparison of years at work.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4)*, 1955-1973.
- [12] K. B. Sim, S. W. Kwag & H. M. Kim. (2016). The effects of rehabilitation therapist's characteristics and job involvement on job stress; in some local hospita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6(2)*, 11-20. DOI: <http://dx.doi.org/10.18598/kcbot.2016.06.02.02>
- [13] M. H. Sung & M. Y. Lee. (2017). Effects of self-leadership, clinical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n nurses' job involvemen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1)*, 1-8.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17.23.1.1>
- [14] G. Lee, S. H. Park, H. J. Lee, S. B. Park & S. H. Kim. (2021).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f nursing ethics research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2011-2020).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24(1)*, 59-80. DOI: <http://dx.doi.org/10.35301/ksme.2021.24.1.59>
- [15] C. J. Ahn, M. C. Kim, M. S. Lee & S. K. Kim. (2016).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thical values of physical therapy: Focused on physical therapists and physic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4(2)*, 37-51. DOI: <http://dx.doi.org/10.15268/ksim.2016.4.2.037>
- [16] S. S. Han, H. A. Park, S. H. Ahn, M. E. Cameron, H. S. Oh & K. U. Kim. (2001).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ethical problems and use of ethical decision-making mode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5)*, 846-857.
- [17] S. S. Han, Y. S. Kim, Y. S. Um & S. H. Ahn. (1999). The statu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in Korea 4-year-college of nursing.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5(2)*, 376-387.
- [18] Y. S. Cheong, Y. S. Koh, I. Kwon, O. J. Kim., J. H. Park, M. S. Sohn, I. H. Lee, K. Y. Lim & K. H. Chang. (2008).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ethics core curriculum for medical traine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11(2)*, 183-190.
- [19] C. W. Chung. (2004).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education in Korean medical school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6(3)*, 259-268.
- [20] J. B. Jun. (2019). Ethics education for internal medicine residency. *Korean journal of medicine, 94(1)*, 1-4. DOI: <https://doi.org/10.3904/kjm.2019.94.1.1>
- [21] H. O. Kim & M. Y. Moon.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ethics education on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6)*, 1706-1717. DOI: <http://dx.doi.org/10.12925/jkocs.2020.37.6.1706>
- [22] Y. S. Kim, J. W. Park & K. S. Bang. (2001). A study on the persist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for nurses' eth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7(2)*, 253-263.
- [23] W. J. Kim & J. H. Park. (2017).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n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s.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24(3)*, 179-186. DOI: <https://doi.org/10.5953/JMJH.2017.24.3.179>
- [24] J. H. Jang, W. S. Hwang & S. M. Lee. (2021). Level of perception of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and the knowledge and attitudes related to medical ethics of students and professors in dental hygie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1(1)*, 77-88.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08>
- [25] Y. J. Yun. (2018). *The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resulting from professional consciousness of occupational therapist*. Master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Gyeonggi-do.
- [26] H. B. Jeon. (2019). *A study on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therapy*. Master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27] S. J. Chang, S. B. Koh, D. M. Kang, S. A. Kim, M. G. Kang, C. G. Lee & J. J. Chung et al.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 [28] R. N. Kanungo. (1982). Measurement of job and work involv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3)*, 341-349.
- [29] S. G. Lee. (2009). *Effect of identity that exercise and physical therapist perceives on organization commitment,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 [30] G. M. Kim, K. Y. Chang, H. S. Lee, M. Y. Jang, H. Kim & E. G. Hong. (2016). *Policy proposal result report for occupational therapy manpower training and discharge*. Seoul: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31] S. Y. Park. (2014). *A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consciousness and job stress*. Master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Gyeonggi-do.
- [32] S. H. Oh & H. I. Cho. (2011). The Influence of job consciousness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bowling coache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0(3)*, 557-570.
- [33] M. Y. Choi, H. S. So & E. Ko. (2019). Influences of occupational stress, ethical dilemma,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6(1)*, 42-51.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9.26.1.42>

- [34] C. H. Suh. (2013).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 of hotel business to ethical leadership, trust in superiors,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22(1), 43-59.
- [35] S. J. Han & S. Kang.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ethical behavior of public officer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2(6), 1041-1065.  
DOI: <https://doi.org/10.18032/kaaba.2019.32.6.1041>
- [36] W. S. Jeon. (2019). *The influence of withdrawal life-sustaining treatment elderly care on the ethical dilemma and job stress of care worker*. Master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Gyeonggi-do.
- [37] M. S. Kim. (2015). *The effects of professionalism awareness and occupational Stress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8] N. Komari & F. Djafar (2013). Work ethics, work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ement at the sharia bank, *Indonesia*.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6(12), 107-117.  
DOI:10.5539/ibr.v6n12p107
- [39] H. Chung & J. H. Kang. (2013). The effect on professional ethic,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satisfaction among private security guard.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37, 7-28.

김 지 훈(Ji Hoon Kim)

[정회원]



- 2017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작업치료전공(이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작업  
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신경계작업치료, 작업과학
- E-Mail : [otkjhoon@kaya.ac.kr](mailto:otkjhoon@kaya.ac.kr)

정 재 훈(Jae Hun Jung)

[정회원]



- 2014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재활심리학전공(재활심리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가야대학교 작업  
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인지재활, 신경심리
- E-Mail : [otjjh@kaya.ac.kr](mailto:otjjh@kaya.ac.kr)